**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집 짓기**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평화 구축 사역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며, 기다림이 아니라 행함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재프 바멘조 (바-멘-조)는 카메룬 (렐루파)의 기아와의 전쟁 네트워크, 국제 평화기구의 코디네이터로 이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룬에서의 그의 사역은 장로교 평화구축 프로그램과 세계선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룬에서는 영어권의 소수가 대부분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2016년에, 점증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변호사와 선생님들이 평화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폭력으로 진압했고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재프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4월에, 그의 숙모는 집을 잃었는데 군대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의 여동생의 남편은 살해되었는데, "그가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전쟁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숭고함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카메룬 장로교회의 한 성도가 썼습니다.

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재프는 그의 사역을 십년 이상 계속해 오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 네트워크는 그 나라의 가난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북부지역의 반복되는 기아 문제들을 특별 문제로 인식하고 음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식료품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게 했으며 식품이 연중 가하도록 했습니다.

혼란과 폭력 속에서, 재프와 네트워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도왔다. “기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시정하는 것이 증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항상 낫다. 초기 단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뒤쫓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항상 낫다.”

미국장로교는 카메룬 장로교회와 이 지역의 국제평화기구와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저는 종종 절망하지만,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평화를 찾고 힘을 얻도록 (당신의 교회가 당신 몫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시오)를 통해 돕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카메룬에, 우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또 긍휼, 평화, 정의가 마음에 와닿는 말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요구가 되는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능동적인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하면, 많은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 폭력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소서. 우리의 공통의 인간성과 당신의 얼굴을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에 처하게 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